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를 중심으로 -

최아름\*, 구지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Focused on Hofstede's Culture Dimensions and CPI Index-

A-Reum Choi\*, Jee-Hyun Koo\*\*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이 투자대상국인 OECD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 거리와 부패인식지수의 차이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현지국과 투자국사이의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리가 클수록 투자건수와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을 때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와 부패인식정도가 무역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무역거래시 교역당사자간의 문화적 성향과 문화적 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부패 등을 비롯한 사회적 변수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무역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외국인직접투자,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 문화거리, 부패인식지수, 무역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OECD countries where Korea is a target country. The differences in the cultural distances of host and home countries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corruption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cultural dimension and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oreign direct invest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the cultural tendency and the higher the perceptions of corruption, the more active the investment. The smaller the power distance between host country and home country in the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larger the number of investments and the larger the size of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d when the investing country'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as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cultural and corruption perceptions can affect trade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ultural tendency and the cultural distance in the trade transaction by confirming that the degree of culture and corruption perceptions can affect the trade transaction. And that it can influence trade and economic growth by appropriately managing social variables such as public corruption.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Hofstede cultural dimension, Culture distanc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de

Received 3 February 2017, Revised 18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A-Reum Choi

(Dept. of Liberal arts, Halla University)

Email: chareum@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글로벌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무역과 투자자유화 정책의 추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하여 기업들을 해외직접투자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0].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의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경영, 국가의 이미지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11,21,24]. 국가의 이미지는 국가의 관계,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적 환경에서 있어서 정치안정도, 투명도, 개방성, 민주화 제건 등이 포함된다[15].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은 1960년대에는 미비한 실적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7년 약 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약 120억 달러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현황은 외환위기 전후로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제화시대의 개방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2016년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약 100억 달러이며, 신고건수는 1,15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투자를 통해서 현지국과 투자국간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투자국의 경우, 현지국의 경제상황, 인구, 정치적·사회적 현황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현지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어려움이 고려된다면 투자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변수 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있어서 시장의 확대 및 안정적 수익 증대 등 경제적 변수 외에도 사회문화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렴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의 국제화 단계로 투자국의 경우, 현지국의 경제적 리스크 외에 사회적 및 문화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홉스테드 6개 차원의 문화적 거리와 부패인식지수의 평균을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건수와 외국인직접투자규모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변수도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도출

### 2.1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

Hofstede는 1967년 66개국의 IBM지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지표화 하였다. Hofstede의 문화적 차원은 초기에 권력거리지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지수의 4가지 지수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대상 국가를 추가하여 현재 6개의 문화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Hofstede가 제시한 6가지 문화적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거리지수는 사회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이 분배되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로 권력거리가 큰 사회는 계층간의 차이를 허용하며, 권력거리가 낮은 사회는 권력분배를 균등하게 하고 불평등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둘째, 개인주의지수는 개인이 자신과 직계 가족만을 돌보는 것이며, 느슨한 사회구조에 대한 선호로 정의될 수 있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친척이나 구성원들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 사회는 결속력 있는 틀에 대해 선호한다. 이 차원은 “나”와 “우리”로 정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남성성 대 여성성 지수로 이 차원의 남성 측면은 성취, 영웅주의, 단호함 및 성공을 위한 물질적 보상에 대한 사회의 선호를 나타내면, 사회는 더욱 경쟁적이다. 그 반대로, 여성성은 협동, 겸손, 약자 및 삶의 질을 돌보는 것을 선호하며, 합의 지향적인 사회이다. 넷째, 불확실성회피지수는 사회구성원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강한 불확실성 회피 지수를 가진 국가는 규범을 중시하며, 비전통적 행동과

아이디어를 용납하지 않는다. 약한 불확실성회피지수를 가진 국가는 원칙보다는 실천에 더 유연한 자세를 유지한다. 다섯째,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은 사회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다. 이 차원의 점수가 낮은 사회는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높은 점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근대 교육의 근검과 노력을 권장한다. 여섯째, 자적-자제지수는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지수로 자적은 인생을 즐기는 재미에 관점을 둔 것이다. 자제는 만족을 억제하고 엄격한 사회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제는 욕구 충족을 억압하고 엄격한 사회적 규범을 통해 규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up>1)</sup>

각 차원은 0부터 100 사이의 점수를 갖는다. 본 연구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6개의 문화적 차원을 살펴보고, 이들 문화적 차원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였다. 또한 현지국과 투자국간의 문화차원의 거리를 계산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화적 차원을 고려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현지, 이학노(2014)는 Hofstede의 5가지 문화지표를 이용하여 문화와 국제무역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문화적 차이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6]. 박용민(2016)은 Hofstede의 문화차원을 중심으로 국제관광수요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에 따라 관광수요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주의지수가 국제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30]. 박순찬(2011)은 남성성지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무역규모가 커짐을 제시하였다[20]. 박순찬(2014)은 국가 간 문화적 근접성이 수출집약도와 수출다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수출집약도가 증가함을 규명하였다[19].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현지국과 투자국간의 문화 거리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건수와 금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 2.2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는 국가 청렴도에 관한 내용으로 국제투

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한다.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0일 경우 매우 부패한 수준이며, 100일 경우 매우 청렴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6년 총 176개 국 중 53위(53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청렴한 국가로는 덴마크(90점) 였으며, 가장 부패한 국가는 소말리아(10점)로 나타났다.<sup>2)</sup>

한 나라의 부패정도는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화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2]. 또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6].

Habib, Zurawicki(2002)는 개최국의 부패와 현지국과 본지국의 부패수준이 모두 부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시 운영상의 비효율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7]. 부패는 투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16,26],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체계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신흥국가에서 부패가 해외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25].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패정도는 국가간의 경제성장률과 외국인투자계획 등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부패가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인식지수가 외국인직접투자 건수와 금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부패인식정도와 부패인식지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 2.3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박영렬, 양령수(2011)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 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이선혜, 박세운(2015)는 정치적 위험이 FDI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각 국의 경제구조의 따라 경제성장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22].

1) geert-hofstede.com

2)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Habib and Zurawicki (2002)는 주최국의 부패 수준과 주최국의 부패 수준의 차이를 평가하여 호스트 국가의 고위층 부패가 FDI를 막는다고 지적했다[7].

부패의 FDI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험적 연구는 두 변수간에 아무런 관계도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었다[8,28].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너무 많은 규정을 가진 국가에서는 부패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4,9,14]. 선행연구를 통하여 경제적 변수 외에 문화와 사회적 변수가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문화적 차원은 6가지 모두 고려하였으며, 현지국과 투자국간의 문화거리를 활용하였다. 또한 부패인식지수를 현지국과 투자국의 지수를 살펴보고 현지국의 부패인식정도에 따라 변수를 환산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적 차이와 부패인식정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흐름과 국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투자국인 OECD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196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건수 및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Geert-Hofstede에서 제시하는 홉스테드 문화차원 6가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있어서 홉스테드의 문화 거리는 Kogut and Singh(1988)이 사용한 수식을 이용한 변환값을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특정국가와 타국가의 문화차이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클리드거리 계산법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홉스테드의 6가지 차원의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거리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CD_{ij} = (I_{ij} - I_{iu})^2 / V_i$$

CDij: i차원의 기준국가와 j국가의 문화적거리  
 Iij: j국가의 i문화차원 값  
 Iiu: 기준국가의 i문화차원 값  
 Vi: i차원의 분산 값

또한 부패인식거리변수는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지국과 투자국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현지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낮으면 1로 제시하였으며, 현지국과 투자국의 평균값보다 현지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0로 제시하여 더 비변수화 하였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거리, 부패인식지수거리, 부패인식지수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 FDI = & \alpha_i + \beta_1 PDIDIS + \beta_2 IDVDIS + \beta_3 MASDIS \\ & + \beta_4 UAIDIS + \beta_5 LTODIS + \beta_6 INDDIS \\ & + \beta_7 CPIDummy + \beta_8 CPI + \epsilon \end{aligned}$$

<Table 1> The definition of variables

List of measurement	Variables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and Foreign investment amou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fstede 6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	Geert-Hofsted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4. 분석 및 결과

#### 4.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신고건수 최소값은 0.69, 최대값은 9.53, 평균은 5.17, 표준편차는 2.137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신고금액 최소값은 4.95, 최대값은 18.01, 평균은 13.19, 표준편차는 3.191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 최소값은 34.50, 최대값은 91.00, 평균은 70.53, 표준편차는 16.669로 나타났다. 권력거리지수 최소값은 18.00, 최대값은 100.00, 평균은 47.00, 표준편차는 18.813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지수 최소값은 27.00, 최대값은 91.00, 평균은 65.14, 표준편차는 17.936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대 여성

성 지수 최소값은 5.00, 최대값은 100.00, 평균은 50.00, 표준편차는 2.996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회피 지수 최소값은 23.00, 최대값은 100.00, 평균은 65.03, 표준편차는 21.679로 나타났다. 장기지향성 대 단기 지향성 지수 최소값은 21.00, 최대값은 88.00, 평균은 49.00, 표준편차는 20.473으로 나타났다. 자적-자제 지수 최소값은 28.00, 최대값은 97.00, 평균은 55.62, 표준편차는 17.859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Classification	N	Minimum	Maximum	Mean	S.D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29	0.69	9.53	5.17	2.137
Foreign investment amount	29	4.95	18.01	13.19	3.19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29	34.50	91.00	70.53	16.669
Power distance index (PDI)	29	18.00	100.00	47.00	18.813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IDV)	29	27.00	91.00	65.14	17.936
Masculinity versus femininity (MAS)	29	5.00	100.00	50.00	2.996
Uncertainty avoidance index (UAI)	29	23.00	100.00	65.03	21.679
Long term orientation versus short term normative orientation (LTO)	29	21.00	88.00	49.00	20.473
Indulgence versus restraint (IND)	29	28.00	97.00	55.62	17.859

#### 4.2 문화적 차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현황 분석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현황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Table 3>과 같이 홉스테드의 6개 문화적 차원을 기준으로 OECD국가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그룹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건수(F=11.221, p<0.01)와 금액(F=9.953,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중 1그룹(Group 1)은 권력거리지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지수, 자적-자제 지수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그

룹에 속한 국가의 청렴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2그룹(Group 2)의 경우 남성성 대 여성성 지수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는 3그룹 중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3그룹(Group 3)의 경우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는 그룹 중 2번째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와 금액은 3그룹(Group 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부패정도가 낮을수록 즉, 청렴할수록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result

Classification		Mean (SD)	F	p	Duncan's test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G1	5.85 (1.664)	11.221	.000*	{2} {1,3}
	G2	3.29 (1.550)			
	G3	7.03 (1.657)			
Foreign investment amount	G1	14.09 (2.581)	9.953	.001*	{2} {1,3}
	G2	10.50 (2.812)			
	G3	16.02 (0.969)			

\*p<0.01

#### 4.3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국인직접투자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홉스테드 문화거리 및 부패인식지수 차이에 따른 더미변수, 부패인식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를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건수에 권력거리(t=-2.539, p<0.05)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리(t=2.333, p<0.05)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현지국과 투자국의 권력거리가 좁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지수 거리가 클수록 외국인직접투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Dep.Var.	Indep.Var.	Beta	t	p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Constant)	2.420	.997	.331
	PDL_DIS	-.605	-2.539	.020*
	IDV_DIS	.173	2.333	.030*
	MAS_DIS	.223	.837	.413
	UAL_DIS	.075	.378	.710
	LTO_DIS	-.132	-1.627	.119
	IND_DIS	.181	1.627	.120
	CIP_Dummy	2.300	1.623	.157
	CPI	.008	.160	.874
$R^2 = .612$ F=3.943 p=.006				

PDL\_DIS, IDV\_DIS, MAS\_DIS, UAL\_DIS, LTO\_DIS, IND\_DIS:  
Cultural distance between host and home countries  
CIP\_Dummy: Difference i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etween host and home countries,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p<0.05

<Table 5>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현지국과 투자국의 권력거리( $t=-3.116$ ,  $p<0.01$ )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리( $t=2.472$ ,  $p<0.05$ ) 그리고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지수의 거리( $t=-1.850$ ,  $p<0.1$ )로 나타났다. 두 국가간의 권력거리가 좁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차이가 클수록,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지수 차이가 작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자국의 부패인식지수( $t=2.195$ ,  $p<0.05$ )가 높을 때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즉 투자국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문화적 거리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건수와 금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부패정도에 따라서도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result

Dep. Var	Indep.Var.	Beta	t	p
Foreign investment amount	(Constant)	10.389	3.212	.004
	PDL_DIS	-.989	-3.116	.005**
	IDV_DIS	.244	2.472	.023*
	MAS_DIS	.106	.299	.768
	UAL_DIS	.202	.764	.454
	LTO_DIS	-.200	-1.850	.079***
	IND_DIS	.253	1.707	.103
	CIP_Dummy	4.498	2.159	.043*
	CPI	-.012	-.189	.852
$R^2 = .691$ F=5.594 p=.001				

PDL\_DIS, IDV\_DIS, MAS\_DIS, UAL\_DIS, LTO\_DIS, IND\_DIS:  
Cultural distance between host and home countries  
CIP\_Dummy: Difference i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etween host and home countries,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p<0.05, \*\*p<0.01 \*\*\*<0.1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이 투자대상국인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지표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국가를 호스태드의 문화적 차원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외국인직접투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권력거리지수가 작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지수가 클수록 외국인직접투자건수와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투자국의 부패인식정도가 높을수록 투자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국이 청렴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 거리에 의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건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무역거래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지표로써 부패인식지수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패정도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패와 무역 및 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관계없음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패한 국가의 경우 국가시스템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이를 통한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역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적 거리와 부패인식지수의 평균을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부패인식정도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 거리와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A. R., Choi, J. H., Koo, "A study on the effect of firm internationalization: focused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109-118, 2016.
- [2] Chen, C., Ding, Y., Kim, C., "High-level politically connected firms", *Corruption and analyst forecast*, 2010.
- [3] E. Y., Cho, "A study on convergence relation of corporate ethical management, consumers' perceived trust, and purchasing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113-121, 2015.
- [4] Egger, P., Winner, H., "Evidence on corruption as an incen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1, pp. 932 - 952, 2005.
- [5] Godinez, J. S., Liu, L., "Corruption distance and FDI flows into Latin America",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24, pp. 33 - 42, 2015.
- [6] H. J. Lim, H. L. Lee, "A empirical study of th effects of cultural differences on trade sal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Review*, Vol. 16, No. 5, pp. 343-359, 2014.
- [7] Habib, M., Zurawicki, L., "Corrup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33, No. 2, pp. 291 - 307, 2002.
- [8] Henisz, W.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multinational investment",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16, pp. 334 - 364, 2000.
- [9] Huntington, S.,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10] J. S., Park, J. N., Choi, "The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97~2012",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8, No. 1, pp. 125-144, 2014.
- [11] K. H., Kim, D. W., Yang, "A study on the effect of CEO ethic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y: focusing on construction compan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4, pp. 173-183, 2016.
- [12] K. I., Kim, J. Y., Park, "Cultural Differences impact on the ERP System Implementation,"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2, pp. 1-9, 2016.
- [13] Kogut, B., Singh, H.,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choice of entry mod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9, No. 3, pp. 411-432, 1988.
- [14] Leff, 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8, pp. 8 - 14, 1964.
- [15] Lippmann, W., "Public Opinion", N. Y. :The Macmillan Company, 1992.
- [16] Mauro, P.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pp. 681 - 712, 1995.
- [17] M. S., Son, Y. M., Seo, B. H., Hyun,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ategy and implications of M&A in Korea IT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 245-252, 2017.
- [18] M. Y., Cha, "Enhancement of SMB global competency for overseas market entr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1, pp. 11-16, 2017.
- [19] S. C. Park, "The impacts of cultural proximity on the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of exports",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Vol. 19, No. 2, pp.71-92, 2014.
- [20] S. C. Park, "Impacts of cultural differences on trade: application to East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Vol. 23, No. 2, pp. 35-54, 2011.
- [21] S. G., Kim, "The study on the CSR: focused on LG electron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69-83, 2016.
- [22] S. H. Lee, S. W. Park, "A study on the impact of political risk on the FDI inflow", *Journal of trade and Credit Insurance*, Vol. 16, No. 2, pp. 87-115, 2015.
- [23] S. J., Lee, D. W., Jeong, J. G., Yu, "The industrial economic costs of unsupplied electricity in OECD countries using input-outpu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 191-198, 2016.
- [24] S. K., Kwon,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 China F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9-17, 2015.
- [25] Voyer, P., Beamish, P., "The effect of corruption on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50, pp. 211 - 224, 2004.
- [26] Wei, S.,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2, No. 1, pp. 1 - 11, 2000a.
- [27] Wei, S., "Local corruption and global capital flow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31, No. 2, pp. 303 - 354, 2000b.
- [28] Wheeler, D., Mody, A.,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3, pp. 57 - 76, 1992.
- [29] Woo, J., Heo, U., "Corrup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veness in Asia", *Asian Politics and Policy*, Vol. 1, No. 2, pp. 223 - 238, 2009.
- [30] Y. M. Park, "Cultural difference and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focusing on Hofstede's culture dimensions theo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143, pp. 183-202, 2016.
- [31] Y. R. Park, Y. S, Yang "Determinant of foer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types of FDI and institutional distanc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Vol. 15, No. 3, pp. 429-449, 2011.
- [32] Y. M., Seo, L., S., E. K., Kim, "The influence of national image, brand image and country of-origin image on purchas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focus on the purchase of korean cosmetics which applied a high and/or convergence technology in chinese consum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69-79, 2015.
- [33] Y. R. Park, Y. S, Yang "Determina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types of FDI and institutional distanc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Vol. 15, No. 3, pp.429-449, 2011.

최 아 름(Choi, A Reum)



- 201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박사)
- 2011년 1월 ~ 2013년 1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촉)부연구위원
- 2013년 9월 ~ 2016년 12월: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외래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경영, 무역
- E-Mail : chareum@hanmail.net

구 지 현(Koo, Jee Hyun)



- 2015년 2월 : 학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추천시스템, 빅데이터
- E-Mail : 9koofox@hanmail.net